

KBS1라디오 전화인터뷰협조 의뢰서



수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기상 연구소 기후연구실 권원태 실장

발신 : 유은하 PD (781-3224) 신연정 작가 (011-9537-3086)

프로그램 : KBS 1라디오 '뉴스 와이드 2부' (FM 97.3 MHz)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방송 출연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 와이드 2부”

나. 진행자 : 박태남, 국혜정 (아나운서)

다. 녹음일시 : 7월 21일(수) 오후 14:00~15:00 <1시간>스튜디오 출연 좌담

라. 방송일시: 7월 24일(토) 오전 11시 10분부터 1시간

마. 찾아오실 곳: 여의도 KBS 본관 5층 RS 5 스튜디오.

(본관 2층 로비에 오셔서 전화 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바. 아래 좌담 예비 원고를 보내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면 수정 보완해 좌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지포함 7장>

끝.

KBS 뉴스 와이드 2부

7월 특집좌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자!”

출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권원태 실장



Signal

Opening

「오프닝 보안」

(박) 안녕하십니까? 박태남입니다.

(국) 국혜정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KBS 뉴스와이드 2부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자는
내용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박) 좌담 함께 하실 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 지구환경 과학부 교수인, 고철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권원태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도입〉 :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한 상황 인식

『권원태 실장』

1. 과거에 비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 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권원태 실장님! 기상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 주시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심각성 제기)

『고철환 위원장』

2. 고철환 위원장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권원태 실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고민들!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을 하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소개)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보고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확립된 개념
 -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 1992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UN환경발전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개념으로 정착
 - 그리고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됨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서 현재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용어임

-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1기, 2기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2003년 12월에 참여정부에서 새로운 3기 위원회가 출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는 우리 위원회의 목적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 즉,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부정책이 수립·추진됨으로써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구환경 과학부 교수로서 위원장을 맡게된 계기)

○ 위원장님 직접 답변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은 어떤 지 등등)

- 우리나라는 '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 '98년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2002년에 마련한 제2차종합대책은 우리 나라의 적정의무부담 논리개발 및 협상역량 확충, 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연구개발촉진,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시책강화 등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부담국이 아닌 상태이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과 CO₂ 배출량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소비패턴을 바꾸고 산업구조를 저탄소배출형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유럽이 앞장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고 저탄소배출형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따르지 않으면 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
- 지금은 국무총리실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하반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조정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최열 공동대표」

3. 최열 대표님!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이 부분은 사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상황 아닙니까?

〈최근 악기상(惡氣象)에 대한 이해〉

「권원태 실장」

4.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는 상당한 상관 관계가 있다!
이 부분에 세 분 모두 ‘공감’을 표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기상현상을 두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원태 실장님!

우리나라의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 날씨의 양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5. 올 여름은, 특히 ‘폭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6.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최열 대표』

7. 최열 대표께서도, 이상기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장! 많이 돌아보셨지요?

『고철환 위원장』

8. 고철환 위원장께서는, 해양학자로서의 견해를 좀 여쭙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엘리뇨’, ‘라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 바닷물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의 기상이변시 자주 거론하는 현상임
 - 해수 온도의 분포가 달라지면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상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아직 정설은 아님
 - 해양에서 일어나는 ‘엘리뇨’와 ‘라니냐’도 문제지만 지구 온난화도 최근의 이상기후의 원인인 것은 거의 분명함
 -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전 약 280ppm에서 1998년 기준 약 360ppm으로 증가하였고, 과거 100년 동안 지구상의 평균 온도는 0.3~0.6℃ 상승

- 세계자원연구소(WRI, 2002)는 현재의 추세라면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부족 상태에 놓이고 해양오염, 산림 파괴, 사막화 현상 등으로 매년 0.5% 정도의 생물 서식지가 파괴

〈기상재앙 발생 가능성 : 예상 시나리오〉

『권원태 실장』

9.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이상기후와 기상재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기상학자들도, 이런 시나리오에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들었어요...
- 미국 국방부에서는 구체적인 기상재앙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마셜 보고서)
 - 우리 기상청이나, 정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있는지요?

〈‘기상재앙’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

『최열 대표』

10. 좌담 초반에는 ‘이상기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기상재앙’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레 하고 있는데, 최열 대표님!
세계 각 국의 환경 포럼에서도, ‘기상재앙’에 대한 ‘논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최근에 인상깊은 ‘논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 지요?
(기상재앙을 불러오는 요인- 에너지 문제 등 등 여러 문제 제기)

『고철환 위원장』

11. 최열 대표의 말씀이 곧,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텐데,
고철환 위원장님! 우리 정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평가가 142개국중 136위라고 발표해서 한동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 바가 있음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을 중추 기능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는 우리 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원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활동 중임
 -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① 활력있는 경제, 높은 삶의 질 ②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 ③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④ 국가적인 사회갈등의 조정·예방을 통한 국민통합 등 네가지 임
 - 추진원칙은 참여와 책임, 대화와 토론, 예방과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책임있는 이해당사자와 지역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자 사이에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방중심의 정책, 통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지니고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물, 에너지, 국토정책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후변화협약대응체계구축’ 연구도 하고 있는데 국내의무부담 등 기후변화협약 진전에 따라 국내협상전략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함

『최열 대표/권원태 실장/ 고철환 위원장』

12. 그런데 에너지 문제도 그렇구요,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의 정책들을 보면,
아직은 ‘보존’ 보다는 성장을 위한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논리’와 ‘개발논리’의 충돌!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

『 고철환 위원장 』

13.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책으로 마련 된 것이,
‘교토 의정서’! ‘기후협약’인데,
고철환 위원장님!
우리도 협약에 가입을 한 상황이지요.
(현재 상황과 미비점)
- 우리 나라는 이미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음
 -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는 2002년 11월에 비준
 - 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기후 변화협약은 93년 12월에 이를 비준
 -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배출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산업계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임
- ※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0%감소시 3조 4천억원의 GDP가 감소될 것으로 보임(2000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 듀폰사의 경우 2010년까지 '90년 수준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일 계획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에너지집약산업에서 지식집약산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10%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산업에 접목되어야 함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한반도 기후 변화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적응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임
 - 즉, 한반도 아열대림의 증가와 온대, 야한대림 감소 해수면 상승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

『권원태 실장/ 최열 대표』

14.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원태 실장과 최열 대표! ‘기후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마무리〉

『고철환 위원장/최열 대표/권원태 실장』

15. 지구온난화의 양상과 이상기후의 징후들 그리고 대규모 기상재앙으로 까지 연결 될 가능성과 기후 협약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매우 사소한 것부터, 먼 미래의 일까지,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 위원장님 직접 답변

끝

감사합니다.